

최근 일본 청년 노동시장 진단: 프리터(freeter)를 둘러싼 쟁점들*

김기헌

(도후쿠대학 박사후 연구원)

■ 머리말

이원적 직업교육제도(dual system)의 혜택을 누렸던 독일과 더불어 학교 추천제라는 독특한 신규졸업자(新卒) 채용관행으로 낮은 청년 실업률을 보여주었던 일본에서도 199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 불황 여파로 청년실업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상황으로 바뀌었다. 일본의 청년 노동시장은 IMF 경제위기 이후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층의 고실업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 1월 현재 일본 청년층의 실업률은 15~24세 9.5%, 25~34세 5.7%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3년 연간 실업률은 각각 10.1%, 6.3%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3년 15~24세 연령층의 연간 실업률은 일본과 유사한 수준인 9.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학교 졸업 이전에 이미 채용이 결정되는 취직 내정(就職內定) 상황을 공식 통계로 제시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1991년 1월 현재 고졸 예정자들의 취직 내정률은 95.6%였으며 기업의 구인수가 구직자수에 비해 3.32배 높았으나 2004년 1월 현재 취직 내정률은 76.7%로 감소했고 구인배율은 1.10배에 그치고 있다.

* 본 원고와 관련 인터뷰에 응해주신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日本労働政策研究及び研修機構)의 코스기 레이코(小杉礼子) 부총괄연구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어 표기는 최영애-김용옥 표기법(the C.K. System)에 따랐으며 일본어 중 일본식 약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는 정자로 표기하였다.

동시에 이것은 종신고용제와 더불어 일본 사회의 안정적인 고용관계의 신화를 대변하던 기업-학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신규졸업자 채용관행이 생명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높은 청년실업과 함께 다수의 청년들이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지 않고 직업세계로 진출하는 실태를 반영한 프리터(freeter)들이 급증하면서 청년 노동시장이 새롭게 재편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00년 이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프리터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최근 일본 청년 노동시장의 현황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본 글에서는 프리터의 정의와 성격, 프리터의 현황과 증가 원인 등 프리터를 둘러싼 쟁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프리터의 정의와 성격

프리터는 ‘자유롭다’는 의미의 free와 학생들의 시간제 취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는 arbeit, 그리고 사람을 지칭하는 접미사 -er의 합성인 free-arbeiter라는 일본식 신조어의 약식 명칭이다. 일본 발음으로는 후리이타(フリーター)인데 1987년 일본의 대표적인 취업알선업체인 리크루트(recruit)사의 아르바이트 정보지(「リクルートフロムエー」)에서 처음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1) 신조어의 장본인인 이 잡지의 전 편집장 미찌시타 히로시(道下裕史)는 한 신문(読売新聞, 2003. 6.24 일자)과의 인터뷰에서 “프리터는 문필가 등 빠른 시간 내에 생활 기반을 잡기 힘든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당장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응원할 목적으로 16년 전에 만든 조어”임을 밝히고 있다.

리크루트사는 일련의 자체 보고서를 통해 약간씩 다른 맥락에서 프리터에 대한 정의를 제시해 왔는데 초기에는 “학교를 졸업한 후 자유로운 생활과 즐거움을 위해 정사원(正社員)으로 취직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는 청년”(リクルート, 1987)으로 정의했으나 1990년도의 「프리터백서(フリーター白書)」에서는 “학생도 정사원도 주부도 아니며 아르바이트, 계약 파견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로 현재 정사원이 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자”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프리터 문제가 노동 수요의 급격한 감소와 기업의 유연화 전략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자기 시간을 즐기려는 일본 청년층의 세태를 더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1990년대 초기까지 청년층의 대다수는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나 직후에 정사원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Kosugi, 2004: 52).

현재 프리터는 관공서의 정책보고서나 연구 논문 등에서도 인용되어 학술 용어로 정착되면서 초기의 의미와는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성(労働省, 현재의 厚生労働省)에서 발간하는 『노동백서(労働白書)』에서 제시한 정의와 내각부(内閣府) 국민생활국(国民生活局)의 『국민생활백서(国民生活白書)』에서 제시한 정의 등이 대표적인데, 전자는 비교적 엄격하게 프리터를 정의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매우 포괄적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다. 『노동백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15~34세의 청년으로 “남성의 경우 취업자 중 근무하는 곳에서의 호칭이 아르바이트·파트타임이면서 취업 연수가 1~5년 미만인 자와 일을 하지 않으면서 가사활동 및 통학활동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여성의 경우 취업자 중 근무하는 곳에서의 호칭이 아르바이트·파트타임이면서 미혼으로 주로 일을 하는 자와 일을 하지 않으면서 가사활동 및 통학활동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의미한다(勞働省, 2000).

반면 『국민생활백서』는 학생과 주부를 제외하고 15~34세의 청년으로 “과건근로를 포함한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무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프리터를 정의하고 있다. 『노동백서』와 『국민생활백서』의 정의는 동일 연령층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부와 학생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국민생활백서』는 『노동백서』와는 달리 남성의 경우 취업기간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업자의 경우에도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취업을 희망하는 자로만 국한하고 있지 않다. 곧 이 정의는 『노동백서』의 대상 외에 그 예비군과 전일제 취업 중 비정규직 성격을 갖는 취업자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민생활백서』의 프리터 정의에는 과건노동자, 촉탁사원, 정사원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도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정의 모두 초기의 프리터 개념, 곧 짧은 시간 동안만 일을 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청년층이라는 의미를 상당부분 탈각하고 잠재적 프리터 인구로서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비정규직 정의와 유사한 측면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199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 불황에 따라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급격

히 줄어들었고 비자발적 유휴 청년인력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두 가지 공식적인 정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생활백서』의 정의가 얼마 전에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아직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선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고 『노동백서』의 정의가 프리터 본래의 의미에 더 부합되는 측면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보다 최근의 정의이고 프리터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하되 분석적으로 세분화가 가능한 『국민생활백서』의 정의에 따르고자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프리터백서』나 『노동백서』의 정의에 기초한 분석 결과들도 제시하고자 한다.

■ 프리터 현황 및 증가 원인

[그림 1]은 『국민생활백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리터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르면 2001년 현재 프리터는 417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같은 수치는 15~34세 청년인구 9명 중 1명, 학생과 주부를 제외한 청년인구 5명 중 1명꼴로 프리터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10년 전인 1991년과 비교해 볼 때 2.3배 가량 증가한 것이며 미취업자(2배)보다는 취업자 프리터(2.5배)의 증가폭이 약간 두드러지고 있다. 프리터 본래의 의미를 살려 현재 취업자인 프리터의 수치를 살펴보면 2003년 현재 244만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 현 근무지의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로 국한하고 있는 『노동백서』의 정의에 따르면 프리터의 수는 1997년 현재 151만명으로 추산되며 2002년 209만명에 이르게 된다(Kosugi, 2004).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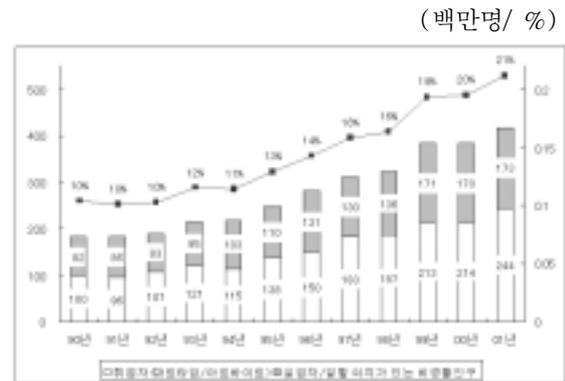
동백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1990년대 이전의 프리터 수(1982년 50만명, 1987년 79만명)와 비교해 볼 때 지난 20년 동안 프리터는 대략 4.2배 증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국민생활백서』를 통해 그 동안 프리터의 연령별 구성과 관련된 새로운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그림 2]는 1992년과 2001년의 연령별 비중을 제시하고 있는데 1992년의 경우 20대 초반이 40.5%로 프리터 인구의 다수를 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1년의 경우 20대 후반이 36.5%로 20대 전반(34.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노동연구기구(日本労働研究機構, 현재의 日本労働政策研究及び研修機構)의 1999년 실태조사보고서(小杉礼子 外, 2000)에서 프리터의 평균연령은 22.7세로 이 중 18~20세 연령층이 32.0%, 21~23세 연령층이 32.0%로 23세 이하가 64.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 들어 프리터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0대 전반의 경우 2001년 현재 80만명으로 1992년에 비해 2.7배나 늘어나, 연령이 높아져도 프리터인 청년층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율 저하(少子化)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의 인구 구성비가 줄어든 탓도 있으나 프리터 생활이 점차 길어져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일본노동연구기구의 보고서를 토대로 학력 수준별 프리터의 분포를 살펴보면, 고교 중퇴 및 졸업자의 비중이 51.5%로 가장 크고 이어서 우리나라의 전문대로 볼 수 있는 단대(短大) 및 전문학교, 훈련학교의 중퇴 및 졸업자가 27.9%, 대학 중퇴 및 졸업자가 19.6%, 대학원 중퇴 및 졸업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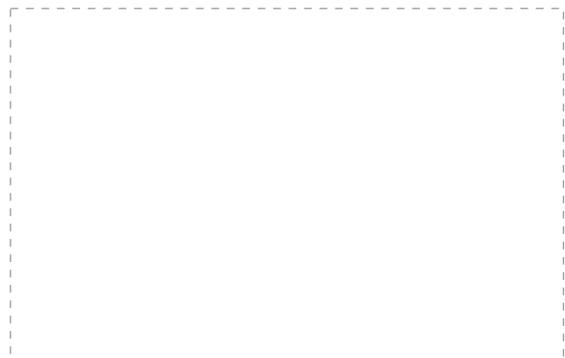
1.0%로 나타나고 있다. 곧 학력이 낮을수록 프리터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최근 들어 고졸 이하의 학력층의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 연령계층의 실업률이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림 1] 프리터 수의 연도별 추이와 프리터 비율의 변화



자료: 内閣府 国民生活局, 「平成15年版 国民生活白書」

[그림 2] 프리터의 연령 코호트별 비중의 변화 (1992년/2001년)



자료: 内閣府 国民生活局, 「平成15年版 国民生活白書」

UFJ은행 산하의 민간기업연구소(UFJ總合研究所)가 최근 제시한 프리터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프리터 수는 2020년 약 444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학생과 주부를 제외한 전체 청년 인구 중 프리터의 비율은 30.6%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UFJ總合研究所, 2004). 이 연구소는 최소 2010년까지 프리터 수는 지속적으로 최고 476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이후 청년인구의 감소로 프리터 수 자체는 감소하되 청년인구 중 프리터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2005: 2010: 2015: 2020=24.6%: 28.2%: 29.4%: 30.6%)으로 내다보고 있다. 프리터의 내부 구성면에서 보면, 취업자 프리터의 수는 인구 변동과 상관없이 증가하여 2020년 352만명으로 늘어나지만 미취업자 프리터의 수는 2005년 179만명을 기점으로 2020년 92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프리터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관련 일본 청년실업 및 프리터 증가 원인에 대한 진단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노동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들을 공히 지적하고 있으나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原純輔・盛山和夫, 1999; 荻谷剛彦, 2001; 강영배, 2001; 김현철, 2002, 2003; 安田雪, 2004; Kosugi, 2004). 첫 번째로 노동수요 측면의 변화요인을 강조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이들은 구조적 요인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노동의 수요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기술이나 경험 면에서 젊거나 혹은 학력이 낮은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고졸 이하의 청년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위축되고 프리터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기업 채용관행의 변화이다. 신규 졸업 채용이라는 장기 고용을 전제로 한 채용을 자제하고 정사원 이외의 고용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의 태도 변화를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일본노동연구기구에서 2002년에 실시한 기업조사 결과(「事業再構築と雇用に關する調査」)에 따르면 신규졸업자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기업의 응답은 9.1%에 불과했으나 중도채용은 17.5%, 계약사원 및 파견노동자 채용은 37.2%, 임시, 계절 및 파트타임 노동자 채용은 38.7%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졸업자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의 응답은 35.4%에 이른다.

두 번째로 노동공급 측면의 요인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 청년층의 일에 대한 태도가 주로 언급되고 있다. 리쿠르트사에서 실시한 기업이미지 조사(「企業イメージ調査」)에 따르면 대학생의 경우 “졸업을 하자마자 사회에 나와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은 50.9%에 불과하며 “졸업했다고 해도 곧바로 취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31.5%, “어느 쪽이라고 대답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17.6%에 이르고 있다(土肥正和, 2000). 다른 한편에서는 중등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을 거의 실시하지 않는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일본의 고등학교의 경우 1인1사주의(1人1社主義)에 따라 학생들을 기업에 추천할 때 단지 학업성적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학생 전반에 대한 직업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학교교육 시스템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신규졸업자 취업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점차 취직내정률이 하락하면서 일반교육 위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전반적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큰 요인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우선 프리터 중 정사원을 희망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민생활백서』에 의하면, 현재 프리터 중 정사원을 희망하는 비율은 72.2%로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비율(14.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본래 의미의 프리터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셈이다. 이어서 청년층의 직업의식이 회박하다는 근거로 높은 이직률과 자발적 이직의 증가를 들고 있으나 그 정도는 매우 완만한 것이어서 급격한 프리터의 증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실태조사 결과 정사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프리터의 취업 의욕이 제시되고 있으나 정사원과 프리터 간의 차이는 그렇게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례로 2003년 내각부의 청년층에 대한 의식실태조사(「若年層の意識実態調査」)에서 “풍요롭게 살지 않아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응답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프리터의 비중은 78.4%나 되지만 정사원의 동일한 응답 비중 역시 72.4%에 이르고 있다.

한편,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 프리터 현상의 계층론적 함의를 밝혀내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佐藤博樹 外, 2003; 安田雪, 2004) 사토 히로키 등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자녀의 경우에 학교 졸업 이후 정사원보다는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쉽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프리터를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였다. 곧, 프리터적 지향 내부에는 사회계층적 측면이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시사점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청년실업률을 보여주고 있고 노동수요 측면에서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직 채용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근간을 이루고 있는 청년노동시장의 특성이나 청년층의 의식구조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한 원활한 학교-직업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던 역사적 경험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고 청년노동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졸업 이전에 이미 90%에 이르는 학생들이 채용이 결정되는 일본식 고용관행과는 달리 졸업 후 채용에 이르는 기간이 평균 1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다. 한국 청년들의 직업의식이 일본처럼 바뀌어, 청년층의 절반 가까이만 졸업 직후 취업을 원하거나 졸업 후에도 여전히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취업을 희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험이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다. 첫 번째는 일본식 고용관행이 현재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원활한 학교-직업 이행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험이 미약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일본과는 달리 학교 추천제 등 학교-기업 간 네트워크의 구축은 여전히 청년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비정규직의 확대가 청년 고용 악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는 한국의 입장에서, 정사원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UFJ총합연구소는 프리터의 경우 정사원

에 비해 연간 소비액수가 절반 이하이고 납세액에서도 5분의 1에 불과한 상황을 염두에 둘 때 프리터의 증가로 2010년도에 이르러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9% 낮아지며 세수입도 1조 4,000억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프리터 현상이 개인 차원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영배, “일본 청소년의 이행(Transition School to Work)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일본연구』 9: (2001) 1-28
- 김현철, “급변하는 일본의 청년노동시장: ‘후리터’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3(1): (2002) 43-78.
- 김현철, “일본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의 변화: 시스템으로의 통합에서 시스템으로부터의 탈주.” 『청소년학연구』 10(2): (2003) 127-154.
- 荻谷剛彦, 『階層化日本と教育危機 -不平等再生産から意欲格差社会』. 有信堂高文社, 2001.
- 小杉礼子 外, 『フリーターの意識と實態 - 97人へのヒアリング結果より -』. 調査研究 報告書 No. 136. 日本労働研究機構, 2000.
- 佐藤博樹 外, 『學校から職場へ - 高卒就職と課題 -』. 調査研究報告書 No. 154. 日本労働研究機構, 2003.
- 土肥正和, 「人才獲得競争」. 『WORK』. No. 43. リクルート Work Institute, 2000.
- 内閣府 国民生活局, 『平成15年版国民生活白書』, 2003.
- 原純輔・盛山和夫, 『社会階層 -豊かさの中の不平等』. 東京大学出版会, 1999.
- 安田雪, 「高卒就職志望者の社会階層 - 社会的理め込みの原因と結果」. 社会階層と不平等研究教育拠点. 第18回 21世紀 COEブックトップ発表文. 東北大學, 2004.
- UFJ総合研究所, 「フリーター人口の長期予測とその経済的影響の試算」. 調査レポート03/116, 2004.
- リクルート, 『若者しごとデータマガジン』, 1987.
- リクルート, 『フリーター白書』, 1990.
- 労働省, 『平成12年版労働白書』, 2000.
- Kosugi, R.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in Japan: Understanding the Increase in Freeter and Jobless Youth,” *Japan Labor Review* 1(1): (2004) 52-67.